“‘태풍 참사’ 울고있는 필리핀을 도와주세요”

광주·전남 이주여성들 눈물 호소

부모·친척·친구들 연락 안 돼 발만 동동

천주교 광주대교구 성금 모금 운동 나서

‘슈퍼 태풍’ 하이옌(Haiyan)으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뒤 광주·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필리핀인들 가운데 일부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있다. 또 큰 어려움을 닥친 동포를 위해 한국인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월 한국 남성과 결혼, 화순에 정착한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가부넬리(36)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모와 연락은 됐지만 삼촌이 실종돼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 집도 파손됐다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가부넬리씨는 필리핀 소식을 전하면서 감정이 북받쳤는지 내내 눈물을 쏟아냈다.

가부넬리씨 고향은 필리핀 레이테주(Leyte州)의 주도인 타클로반(Tacloban City). 지난 8일 순간 최대풍속 시속 379㎞(초속 105m)의 ‘슈퍼 태풍’이 몰아치면서 사망자 2275명·부상자 3665명 등 5940명의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그 지역이다.

현재 파손된 가옥만도 15만 가구에 이재민 수만 대략 4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부넬리씨처럼 타클로반이 고향인 외국인 노동자 레이(30)씨는 이미 지난 9일 필리핀으로 떠났다.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아내·딸 등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필리핀인 중에도 부모·친척·친구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이주민회관(광산구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등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거주 필리핀인은 모두 2344명(광주 947명·전남 1397명). 이들은 갑작스런 재앙이 닥친 고향에 가지 못한 채 가족들과 소식이 닿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현재 태풍 피해지역은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마다 약탈 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신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염병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는 게 지역 거주 필리핀인들의 설명이다.

이주여성 엘카멜라니(여·26)씨는 “한국에 온 지 2년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피해를 입은 주변인들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다”며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루빨리 모든 가족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민과 필리핀인, 다문화가정 등도 지난 9일부터 태풍으로 고통받는 필리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 모금 등 지원활동에 나섰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이주민회관과 필리핀인들로 구성된 ‘광주 필리핀 공동체’는 성금 모금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 광주시민들이 후원해준 의류·생수·생필품 등을 모아 태풍 피해지역으로 보낼 계획이다.

‘광주 필리핀 공동체’ 디아즈 쉐릴(여·34) 대표는 “고국 동포들이 이번 태풍으로 실의에 젖어있지만, 광주·전남주민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010-5732-292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외국에 있는 어린이 출석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5천만원 ‘꿀꺽’

어린이집 원장 4명 입건

허위 서류를 꾸며 국고 보조금을 챙겨온 어린이집 원장 등이 붙잡혔다. 경찰은 업계 전반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단속 기간을 연장,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장기 결석한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출석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챙긴 혐의(영유아 보호법 위반)로 전모(여·38)씨 등 어린이집 원장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일부 원장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보육교사 3명도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다문화가정 출신 원생들이 장기간 외국체류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꾸며 어린이집 한 곳당 1000만~17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원장 자격증을 빌려 무자격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2명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국고 보조금 횡령, 부정부패 사범 등에 대해 벌인 ‘국민공감 기획수사’ 기간이 오는 19일 만료되지만 내년 1월 29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지방 자치단체 등과 연계,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제도·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행복한 결혼식 광주 북구청은 13일 그랑시아 웨딩컨벤션에서 베트남·중국·캄보디아·필리핀 등 다문화가족 10쌍의 합동결혼식을 열었다.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신랑·신부의 표정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진도군청 나쁜 공무원들 벌금 어민들에 대납시켜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부과된 벌금 절반을 어민들에게 대납받은 진도군 소속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진도경찰은 13일 어민들로부터 15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57)씨 등 진도군 소속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어민들과 공무원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금전 거래를 보고도 묵인한 혐의(뇌물수수 방조 등)로 김모(51)씨 등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당시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지급된 것처럼 금융계좌를 조작해 어민 부담금(사업비의 50%)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고 어민 채씨 등은 이런 점을 감안, 벌금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군 공무원 야산에서 목 매 숨져

13일 오후 2시20분께 해남군 해남읍 한 야산 팔각정에서 해남군 소속 공무원 문모(45·7급)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문씨는 이 날 오전 11시30분께 “점심을 먹으러 간다”며 사무실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문화관광·지역축제 등을 담당하던 문씨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동료와 유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비위 의혹 감찰 경찰서장 “품위 손상” 대기발령

비위 의혹으로 감찰 대상에 올랐던 광주지역 일선 서장이 전격 대기발령됐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광주 일선 서장인 A 총경을 경무과 소속으로 대기 발령했다. A 총경은 지난 9월 전남 지역 경찰서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 감찰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A 총경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죽했으면…’ 원룸 주인의 고육책

가스 배관에 뾰족 가시 박힌 스테인레스 덮개 설치

특수 형광물질 덧칠하기도 … 입주자들 “안심된다”

박상균(52·가명)씨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 소유의 D원룸에 최근 12 만원을 들여 가스 배관에 뾰족한 가시가 촘촘히 박힌 스테인레스 덮개〈사진〉를 설치했다.

원룸 입주자들의 “절도범 때문에 무섭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내놓은 자구책으로, 1층 주차장부터 2층으로 연결되는 가스 배관을 길이 30㎝짜리 스테인리스 가시가 10㎝ 간격으로 박힌 덮개로 덮었다.

박씨는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와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절도범들이 많다보니 입주자들의 걱정이 많았다”면서 “실리콘을 이용해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입주자들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경찰과 자치단체가 방범등과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도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 서구 쌍촌동 원룸촌 일대를 비롯, 동구 금동 구시청 인근 원룸촌, 화정·내방동 원룸 밀집지역, 남구 백운동 여성 원룸 밀집지역 등은 광주 경찰이 첫 손에 꼽는 범죄 우려 지역들이다. 게다가 범죄 예방이 원룸 임대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탓에 가스배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게 원룸 업계 설명이다.

가시형 배관 덮개뿐 아니라 가스배관에 덧칠하는 ‘특수형광물질’ 등 방범용 건축용품도 나왔다. 특수형광물질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 검출장비를 이용하면 금세 드러나고 비누나 세제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 범죄 발생 뒤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벽 안에 가스 배관을 숨기거나 밟고 올라갈 수 없도록 사각·원형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원룸 업자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동네, 원룸으로 알려지면 임대 수익이 좋을 리 없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원룸 밀집 지역에 대한 치안이 불안하다는 반증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김주하 앵커 ‘시어머니 협박’ 무혐의

쌍나팔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0) MBC 앵커가 시어머니에게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명.

○…13일 서울용산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사를 하다가 김 앵커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시어머니가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목격자 등의 진술로 볼 때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이혼 소송 중인 김씨와 남편 강모(43)씨는 서로 각각 상해·폭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조사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3타경 16808	1	서구 상무버들로40번길14, 110동1층101호[유촌동,상무버들마을1주공아파트] 59.85㎡	아파트	113,000,000 113,000,000	
2013타경 17542	1	광산구 도산로 3, 101동 9층 914호 [도산동,도산동무등파크맨션] 59.88㎡	아파트	80,000,000 80,000,000	
2013타경 18033	1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12, 115동 1층 104호 [운남동,삼성아파트] 59.91㎡	아파트	95,000,000 95,000,000	
2013타경 18217	1	남구 용대로 128, 에이동 13층 1303호 59.918㎡	아파트	85,000,000 85,000,000	
2013타경 18316	1	서구 화정동 930-1 라인동산아파트 107동 14층 1408호 59.85㎡	아파트	107,000,000 107,000,000	
2013타경 19319	1	북구 연제동 2-2 2층 203호 59.91㎡[공유자손홍채지분20분의4전부]	아파트	14,000,000 14,0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3타경 14987	1	북구 두방길 20번길 19 34.71㎡ 부속건물 광 1.65㎡ 제시외 부속차양 11.5㎡	단독주택	31,507,850 31,507,85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
		북구 풍향동 430-41 76㎡[현황:일부도로]	대		
2013타경 17337	1	북구 중흥동 52 191㎡	대	82,388,800 82,388,8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
		북구 향토문화로2번길 73-10 51.23㎡ 부속건물 주택 8.59㎡ 제시외 주택 등 60.4㎡	단독주택		
2013타경 18040	1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803 635㎡	대	34,579,800 34,579,8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801-1 59.5㎡[현황:공가] 제시외 창고등154.35㎡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13328	1	담양군 남면 연천리 산5 77256㎡	임야	46,353,600 46,353,600	
2013타경 16273	1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산86-1 4364㎡[공유자최상호지분3분의1전부][분묘소재]	임야	1,687,413 1,687,413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허용
2013타경 16549	1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462-3 1240㎡	답	11,532,000 11,53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16549	2	동소 1340-2 1657㎡[현황:일부대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0,215,400 20,215,400	매각제외건물소재
2013타경 17474	1	광산구선동 산107-2 298㎡[공유자양홍용지분4분의1전부]	임야	13,612,150 13,612,15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허용
		동소 산107-3 8628㎡[현황:일부전및묘지][목록1과지분동일][분묘소재]	임야		
2013타경 18866	2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 517-2 1920㎡	답	26,880,000 26,8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20166	1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748 867㎡[매각제외건물소재.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31,207,200 31,207,200	일괄매각.수목포함.국가하천저촉
		동소 700-1 2349㎡	답		
2013타경 20432	1	장성군 남면 월정리 1059-10 603.7㎡[공유자최남주지분2분의1전부]	답	14,857,500 14,857,500	일괄매각.비닐하우스제외.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허용
		동소 1059-17 146.5㎡[목록1과지분동일]	답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3타경 12400	1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72, 3층 308호 [월계동,대성트윈스밸리] 531.78㎡	근린시설	799,000,000 799,000,000	일괄매각
		동소 800번길72, 3층 308-1호 [월계동,대성트윈스밸리] 39.72㎡	근린시설		
2013타경 16709	1	북구 오룡동 1110-33 애플지식센타 블루동 비동 3호 복수층 1층46.28㎡ 2층60.9㎡	근린시설	130,000,000 130,000,000	임차인있음
[기타]					
2013타경 5778	1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704 4718.6㎡	공장용지	471,714,000 471,714,000	일괄매각.기계기구포함.매각제외컨테이너1동소재
		화순군 이양면 이양농공길 57 330㎡ 제시외 수전설비 1식	공장		
		동소 2동호 333㎡	공장		
2013타경 10367 2013타경 7613 [중복]	1	광산구 장록동 751-6 공장동 4,631.88㎡ 가공동 1,006.46㎡ 복지동 1층1,227.51㎡[식당,사무실] 2층544.05㎡[연구실,대회의실] 부속건물 경비실 54㎡ 유틸리티동650.56㎡[전기실,발전기실,창고]	공장	3,651,677,760 3,651,677,760	
2013타경 17740	1	화순군 북면 옥리 272-3 16㎡[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2,588,700 12,588,700	일괄매각.목록3,4공유자조효정,조민지각지분10분의1전부
		동소 275-1 100㎡	대		
		동소 274-1 367㎡[매각제외건물소재]	창고용지		
		동소 274-1 1층165.47㎡[농기계보관창고] 제시외 축사 7.3㎡	창고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3. 11. 28.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3. 12. 5.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